재생에너지 협력지구 조성 탄력

새만금개발청, 와이에이치에너지 · 주왕산업과 산단 입주계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인 와이에이치에너지㈜(대표 고기헌), ㈜주왕산업(대표 나윤경)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일궈낸 올해 첫 입주계약 성과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산단 입주계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와이에이치에너지㈜는 산단 2공구(4만㎡)에 163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올해 3월 착공해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인버터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 관련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모듈 일부가 그늘질 때 전체 발전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그늘짐 현상, Shading Effect)를 크게 개선한 차세대 태양광 모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넓은 규모의 단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옥상, 베란다 등을 활용한 가정용 풍력발전 보급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전소음이 적고 낮은 풍속에서도 안정적인 효율을 내는 소형 풍력 발전설비 개발을 완료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주왕산업은 산단 2공구(2만6,000㎡)에 83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용 수배전반, 제어장치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올해 3월 착공해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받아와 필요한 만큼 전력량을 조절·공급하는 수배전반 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과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강소기업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이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이 믿고 투자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시 · 군 ·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 편성해 운영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병행해 소비자가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위원(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26일 전북도를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전북도,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 공모

대상지역 선정 시 · 군에는 조성사업비 4억원 등 지원

전북도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은퇴 후 노년기를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은퇴자 작업공간'은 뉴질랜드의 '남자의 헛간(Men's Shed)' 사업을 벤치마킹해 전북도 실정에 맞게 운영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 작업공간은 은퇴(예정)자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책상, 의자,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도마, 냄비받침 등)을 제작, 수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삶의 보람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2개소(익산, 남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주시 1개소, 지난 해에는 고창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 공모 중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는 공간조성, 각종 장비구입 등을 위해 조성사업비로 4억원(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강사 등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어 작업공간에서 제작된 제품들을 지역사회를 위한 경로당 등에 기증할 예정이며,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은 상반기 중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장비구비 등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은퇴자 작업 공간이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한편, 취미활동 및 창업과 향후 소득창출로도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 최선 다할 것"

유승민 IOC 위원, 전북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 나눠… 송 지사 '人和' 강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위원(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26일 전라북도를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사무총장과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함께해 2023년 전라북도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유승민 IOC 위원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IOC위원으로서, 대한탁구협회장으로서, 무엇보다 체육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는 글귀로 화답하며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인화(人和)'를 강조했다.

이 말은 맹자(孟子)에 실려있는 말로 '하늘이 주는 좋은 기회라 해도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굳건한 사람들의 화합(和合)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3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국내 최초 국제생활체육종합대회로, 전 세계 70개국 2만8,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는 교원(유·초·중등 특수)과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교육감 총회와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2월 4일까지 전국시도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 선정 결과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2월 16일 공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꽃 소비 활성화 운동 시행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 또는 취소로 성수기를 맞이해야 할 도내 화훼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전북도가 꽃 소비 활성화 운동에 나섰다.

도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내 직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의 일환인 꽃 팔아주기는 절화류(장미)의 도매거래량이 전년보다 약 25%, 가격은 약 5% 하락한 가운데, 졸업식·입학식 등 화훼농가 연간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각종 행사가 있는 1월~3월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청내 직원들에게 1단 기준 장미 1만원, 프리지아 5,000원, 국화 7,000원 가격으로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 구입 물량을 신청받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 등 29개 유관기관에 2월 2일까지 구입량을 신청받아 2월 4일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창열 도 농산유통과장은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소비촉진 운동에 많은 유관기관과 도민이 참여해 화훼농가를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